LUXURY

NOVEMBER 2025

Special Book <LUXURY MOTORS>

WHAT IS FAHION NOW?

THE LONDON DESIGN SCENE

LEATHER ESSENCE

가을과 겨울 사이, 가죽의 깊은 질감으로 완성한 리빙 무드

EDITOR 김민지

1 프란체스코 메다가 새롭게 디자인한 '팔마Palma' 소파. 건축적인 선과 유려한 곡선이 함께 이루는 실루엣이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. **메리탈리아** meritalia.it **2** 거실이나 침실에서 다양한 물건을 넣어 보관하기 좋은 '더비' 바스켓. 에르메스 특유의 가죽 컬러 조합이 돋보인다. **에르메스** hermes.com **3** 다이닝 테이블 위에서 디캔터나 와인 잔, 향초 등을 올려놓기 좋은 가죽 소재의 회전 트레이. **폴트로나 프라우** poltronafrau.com **4** 견고한 나무 소재 프레임과 푹신한 가죽 좌석, 팔걸이가 조화를 이루는 '클로티Cloti' 암체어. **프래그** frag.it **5** 미스 반데어로에가 디자인한 1927년 이후 지금까지도 놀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'MR' 사이드 체어 가죽 시트 버전. **놀** knoll.com **6** 빈센트 반 두이센과 함께 선보인 '아리아Aria' 책상. 미니멀한 실루엣과 비건 가죽으로 감싼 강철 프레임이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. **몰테니앤씨** molteni.it **7** 필립 스탁이 여행에서 영감을 받아 올해 새롭게 출시한 오토만 '썸웨어Somewhere'. 여행 가방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 공간에 유쾌함을 더한다. **까시나** cassina.com